



가나인 병학관인 외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특우로 이문종 일대야 주인공이 큰 피해
를 입었습니다. 또, 각계마다 고교형
경의실이 만들어졌다는 것.
외대의 병학을 돌아봅시다.



전공조사 위원회는 수강신청 제도.
타 학교와 비교해 대단점을 알아봅니다.

동전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요즘, 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뻘이들 났다. 교과서를 직접 접해
4년에서 만년제요.



8월에 열린 평양공동대외에 참가한 외
대인들이 그 전상과 성과를 일러드립니다.

동고합매이다 미주지게 되는
서울매매로 본관 일수정 벽화를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로운 본관이 들어오면 이 벽화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있을까요?
외대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상이에 그 남의 부끄러움을 말하리라
자 할경태수담에 대해서입니다.

학사 개편안 시행유보

총장, 수정보완해 구성원 합의 이룰터

학사구조개편안 시행이 1년 유보됐다.
지난 달 14일(월) 학교측은 처장단회의, 교무
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열고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유보방향을 결정했
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8월 3일 학사구조개편
내용과 관련된 공표문헌을 반박하고 8월
29일 '학사구조개편안'을 삭제한 학칙을 재
발표했다. 이로써 2002학년도 신입생은 기존의
학사구조대로 선발하게 되며, '언어학 전공'을
'언어학과'와 '전공'으로, '영어학과'를 '영
어학과'로 명칭변경할 방침이다.

우리학교 조규정 총장은 지난달 21일(화) 발
표된 담화문을 통해 "2천여의 기간 동안 준비
한 학사구조개편안 시행이 유보된 점과 행정상
차질이 빚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안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며, "이 기간 동안에
구성원들의 진일보한 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발
전되고 수정 보완된 학사구조개편안 마련된
다면 오히려 전회위원회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연배총장 등, 사학계의 지역화 도입과 정
원조정을 통한 디지털전환 학부와 인문사회
자유계열 신설 방안이 담긴 학사구조개편안은
우리학교 여론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
아왔다.

지난 5월 29일에는 유연배총장, 동원학, 서유
림학, 동원학대학 학과장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의 변화가 우선순위
로 필요함'을 밝히며, 구조조정의 대상이 전도

되었다는 공문을 총장에게 제출했다.
특히, 그동안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던 재직동문교수회(회장 박철 사반이)에
교수)는 지난 5월 2일 임시회의를 열고 디지털
컨텐츠대학 신설을 반대했으며, 지난달 13일
(월)에는 '불법 학사구조개편안 철회를 요구
하며 퇴원 의원'인 단식투쟁을 벌였다.
재직동문교수회가 학사구조개편안을 반대하
는 이유는 '민주적 절차(협의)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전체교수회의의 통한 학사구조개편안
심의, 의견 △디지털 컨텐츠 학과, 인문사회 자
유선학 계열은 변경사실도 못확했다는 점 등이
다.

이런 단식투쟁에 참여한 소망(박인영)에
교수는 "어문학을 더욱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사구조개편이 시행돼야 한다"며 "유보가 된
만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학사구조개편안 시행유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진숙씨는 "구조조정의 주
체가 되어야 하는 유연배총장 등, 사학계와 교수들이
학사구조개편안에 반대해 해왔다. 그러하기에
구체적인 지역화 프로그램은 생길 수 없었
다"며 "어문학 교수들의 반대가 유보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로써 8월부터 한 4년을 끌어온 우리학교
학사구조개편이 시행을 앞두고 다시금 좌절되
었다. 학교측은 200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
는 변화된 학사구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
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준비해 갈 계획이다.

2학기 수시모집 전체 지원을 6.09%

우리학교 입학과가 지난 29일(수)부터 31일
(금)까지 2002학년도 전형별 수시모집(2학기)
원서를 접수 한 결과 지원을 6.09%(서울매매
6.92%, 용인매매 5.33%, 농어촌 자녀 제외)로
마감됐다.

제2외국어 우수자, 자연계우수자, 국제화 특
가자, 벤처기업경영자 등 총 9개의 유형이 있
으며, 각 전형별로 면접, 자기소개서, 학생생활기
록부 반영 비율을 달리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담임교사추천 특별전
형은 서울매매로 영어학부 지원이 21.7%, 서
반이학과 20.9%, 용인매매로 인문학부 13.0%
를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초.중.고에서 20년 이상 근무 현직 및 퇴직학
교사의 자녀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장학기금교
사 자녀 특별전형도 처음 실시돼 서울매매로
지원을 9.62%, 용인매매로 지원을 7.64%의 많
은 학생들이 지원했다.

TOEIC 성적 우수자 특별전형은 지난 학기에
비해 지원 가능 점수를 40점 정도 상향조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지원율 2.18%를 보였다.
FLX는 서울매매로 지원을 0.18%, 용인매매로
지원을 0.75%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입학주임 이재명씨는 "토익지원자
격을 950점으로 상향조정한데도 지원율이 관측
다"며 "더욱 특화된 외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지난달 15일(수)에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전국 신문발행총회 연석 회의
(후)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소속의 학생들이 조선일보 본대 전국 대학
생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한편, 우리 학교 신상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서울에서는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열렸
으며 남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해 평양행사
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평양행사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3
대헌장 기념달 앞 행사 참가와 인권과 방방
폭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민간교류를 확대
하기로 한 정부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양행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정부
가 7대 중대 대표들과 민회, 통일연대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김중수)의 방북을 불허하
여 따라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에 북측은 조국통일 대헌장 기념달 행사에
'참관' 형식으로 남측 대표단의 참여를 재검

고 정부는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하되
기념달에서의 행사는 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결국 예정보다 하루 늦은 15일 대표단 31명과
단체 20명은 순안항에 도착했다. 둘째 날
인 16일에는 청년학생과 일문예사예곡 전시회,
북부민 대회, 문화행사 등 일정이 예정대로 진
행되었다. 17일과 20일에는 평양 시내를 견학
하고 18,19일 양일간 배두산, 묘향산 관광을 하
고 함께 막을 내렸다. 우리 학교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통
일위원회의 위원장 박지현(중앙·인도어 97학)
"서울 행사와 더불어 평양 축전이 가지는 의미
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평양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행사의 첫째 날에는 한문학과 법민원의
이규진 총회원을 위한 집회가 사대문 독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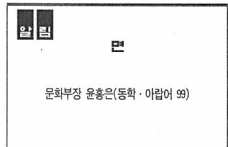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논의 연기돼

지난 27일(월) 등록금조정소위원회가 열렸
으나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연
기됐다.

이날 학교측은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건설할
수 없다는 지난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정위원
회의 지위를 역할에 대해 논란을 주장을
했다. 이에 용인매매로 총학생회측은 등록금조정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격상시켜 책정위원회를
건설할 것과 퇴직교수에 관련한 학교측의 분
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매매로 총학생회측은 지난 학기 학
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된 한 등록금 인상분
2%가 배분 시일에 장학금으로 쓰인 수 있도록
촉구했다. 양매매로 총학생회측은 지난 학기
월 대학평의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문화부장 윤용민(동학·아름어 99)

총장선거 개선안 통과, 시기는 올 12월 이후로 확정

교수회의(교협) 총회가 지난 8월 23일(목)
용인매매로 외국학동합연구센터에서 170여명
의 교수들이 참석해 가결했다. 교협 회장
송경숙(아름어)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총장선거 개편안 심의, 총장선거 시기의 전이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후, 비밀투표 결과 △
10년 이상 근무 교수에게 총장후보직자를 부여
하고 △2차례 이상 정복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 총장선거 개편안이 통과됐다. ▶23에서
이어짐

또한, 총장선거 시기는 참가자 167명 중 과반
수가 넘는 86명(반대 75명, 기권 6명)이 이
상이 교제되는 올 12월 이후의한다는 것에
찬성했다.

한편, 교협은 내년 교제되는 이사제도와 관
련해서는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 총장에게 전달
하기로 결정했다.

한 조규정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내년 8월
만료됨에 따라 후임총장의 선출시기를 묻는 안
건은 학사구조개편안 유보결과와 이사제도 변

화와 맞물려 격렬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교협 총회에 앞서 열린 전제교수간담회에서
는 △교수-교원협력형 시행 △학생자-학생
돌봄 돌봄학생연대활동, 총학생회 합의사항 추
진결과, 교내생각 교육 △총학생회-학생부수
사 결과 △재무처-등록금 회계 분할납부 실시
△도서관-도서관인 상황안내 등 각 부서별 업
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1학기에 달했습니다

매매로 힘들 때도 있었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자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렸습니다.
혹시 2% 부족하지 않았나요?



방학중의 재충전 시간.

각자가 나름의 시간을 가졌지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읽고 싶었던 책을 실컷 읽기도
했겠지요. 값진 때도 흘려보냈겠지요?



자,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1년의 나머지 반을 후회없이 보내
기 위해 또 달려야겠지요?
아참, 그런데 여러분의
부족한 2%는 무엇이었죠?

민족주주론
외대학보

이 사람

민중 가요를 통해 세상을 배워요



2001 민족통일대축전 '통일노래하마당'에서 입상한 송찬철 박성훈(사상·영어 00)공감 만나

"이제는 노래를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 민중가요를 부를 때면 행복하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말하는 주인공 박성훈(사상·영어 00)군은 밝게 웃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 배움터 영어와 노래로 송찬철 박성훈이 지난 15일(수)에 여의도에서 열린 '5·16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통일 노래 한마당'에서 3위의 성적으로 입상했다. "이번 대회는 송찬 구상원 모두가 합동해 준비하여 이론 성취"라며 이 기쁨을 통가와 후에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송찬 모부와 함께 하고 싶다"라며 입상의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은 노래는 박군이 직접 작곡한 '함께 걸자'를 가사로 하여 6·15공동 선언과 경의선 복원을 가대하는 통일노래와 화합이 담겨 있다. 유래 대 통제 기간에 열린 '통일 노래 한마당'과 '통일 대축전'에서 입상하여 여의도 무대에 갈 수 있었으며 그대 생활을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15일 행사에 참가하기 2주전에 연락을 받아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방학이라 고향에 내려가서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적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준비하는 동안 통가와 많이 부딪쳐서 힘들기도 했지만 노래를 부르며 한 마음이 되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찬은 지난 89년 88·89학번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노래프로젝트 당시 학생운동에 노래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진 것이 올해로 13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송찬이라는 말의 뜻은 소나무처럼 언뜻나 푸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의미와 함께 잔디도 사투리 중에 '송잔지'라 한다는 말에서 따왔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처음 의도가 많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민중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다.

"나에게 송찬은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다. 새끼 시냇물 주머니와 보면 새끼들이 주머니에 있는 물을 불러서 같이 있어 주었다. 고향의 잔디도 익사이라 혼자 자취를 해 외롭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나를 찾아 주는 새끼들이 고향에 느껴졌"이라며 송찬은 사람들의 사이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있었다.

그는 "노래만큼 좋은 세상"이라는 민중가요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처음에 민중가요에 느끼고 있던 거부감을 이 노래를 통해서 없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중가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너무 심하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민중 가요를 편견 없이 접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외대 노래부가 연합하여 공연을 할 것인지 하는 바램을 밝혔다. 인터뷰 중에 또 삼 번만 순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이 민중가요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느꼈다.

홍수피해로 이문·취경 지역 주민들 몸살

주민대책위,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책임자처벌 요구

지난 7월 14일(토)과 15일(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이문·취경지역에도 홍수피해가 있었다. 7월 16일(월) 23시경 캠퍼스 비정상기동, 제대로 하지 못한 대피방송, 구청의 피해에 대한 느린 대처 등에 대한 항의로 시민 백 여 명이 외대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7일(화) 04시경 경찰의 의해 24명의 주민들이 연행되며 강제 해산되고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경 외대생 20여명이 외대역 건물로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과정의 내용은 '5분만 늦었어도 익사할 뻔했다',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도' 등이었다. 시위를 하던 외대생들은 경찰의 경찰차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대부분 앞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고 2시간 소식을 듣고 온 구청장과의 대화가 되고 있는 이곳들을 계속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취경동의 한 지역에서는 "지금 생각해보고 끔찍하다. 사람이 온몸 물에 잠겼다"며, "구청에서 좀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현재 '이문 취경 수해주민대책위'는 요구사항으로 △등대문 구청의 주민에 대한 사과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이문 홍수피해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대는 지난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토)까지 사법대 열린학교를 진행했다. 사법대 학생들의 교육심습·교육을 통한 지역연대·대인교육 등을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학생 38명과 사법대 학생 18명이 참여했다.

사법대 6일간 열린학교 진행

시간대별로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어, 앞면에서는 영어·국어·역사, 뒷면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공작·생물과학을 들었다.

이와 관련, 사법대 교육부장 이승철(영문 97)군은 "9월중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만남을 가진 예정이다"며 "이번에 처음 열린학교에 참여한 이화여대생도 참교육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진지한 고민을 해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배움터 농민학생연대활동 진행

서울배움터는 '한·칠레 협정반대, 6·15공동선언안, 농가민간 민중탄압 강제추진권 반대'라는 기자회견을 6월 29일(금)부터 7월 8일(일)까지 전북 순창군에서 농민학생연대활동(농학)을 진행했다. 모두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농학은 순창군 여성농민대학, 농민학생동맹연합회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양배움터 농학활동의 '자주와 통일'을 향한 민중, 민중의 뜻은 하늘의 뜻, 민중농학의 기치로 왕산학생회의 혁신을 맞이하자'는 기치 아래 6월 29일(화)부터 7월 8일(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매방에서 진행했다. 또한 농학기간 중 반전반파, 통일문화제, 통일영화제 등

농학의 의의와 통일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한편, 정보산업공과과는 6월 29일(금)부터 7월 8일(일)까지 25명이 참여해 충북 영동군 주곡리에서 농학을 진행했다. 서울배움터는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1일(수)부터 20일(금)까지 일본도의 농업전반 반대를 위해 전남 신안군 압해에서 어항을 가졌다.

이와 관련 서울배움터 학생회 회장권(이대여 94)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등록금 3회 분할납부 첫시행, 신청자 두배 늘어

이번 학기 처음으로 시작되는 등록금 3회 분할납부에 신청한 학생이 2회 분할납부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3회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590명(서울 352명, 용인 238명)으로 지난 3회(동남 2회 분할 납부한 학생 평균 322명보다 약 2배 큰 숫자이다. (8월 29일 현재) 등록금 3회 분할 납부는 지난 학기 양배움터 등록금 무정 이후 학교 측이 약속한 사항이다.

경리와 한 직원은 "2회 분할납부보다 1학년 학생의 비율이 높아 등록금 완성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각 대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상환율도 납부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 재학생이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하면 학교측은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 2%를 물어야 한다. 등록금이 200만 원이던 학대 수수료는 4만 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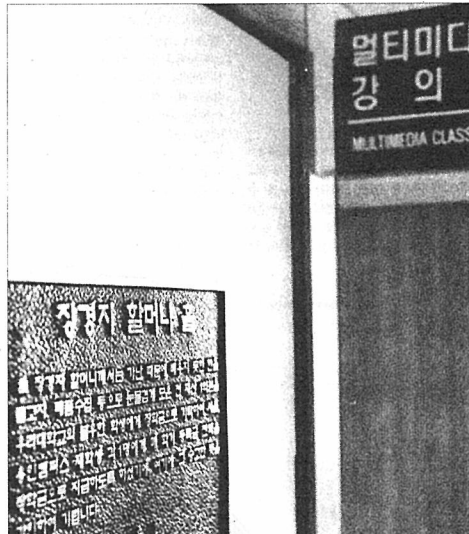
중국어와 소모임 관리행, 중국 3300Km 횡단

양배움터 중국어와 소모임 '관리행' 단원 10명은 지난 7월 10일(화)부터 8월 18일(토)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전역을 이용해 중국내 3300km를 횡단했다.

자네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도정은 '감성 인식'과 '인성인식'의 축적을 병행했다는 취지로 1인(6명)과 2인(4명)으로 나누어 출발했다.

관리행 단원들은 현지에서 가진 여러 신문사의 방송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학교와 자신들이 속해있는 관리행을 소개하고 일본 교과서에서 역사왜곡과 북경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귀국후 지난 8월 28일(일)에 서울배움터에서 '2001년 관리행 대안'을 기했다.



새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학교 곳곳이 바뀌었다. 서울배움터는 도서관과 학생회관 휴게실 및 강의실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며, 용인배움터는 스터비스의 신상 노선과 중차기 이루어졌다. 시군은 서울배움터 인공과학관 401호 강의실로, 학생들 모여든 토론 학교에 기동하고 강경자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경자 할머니'가 있다.

학 바꿨습니다

▶1면에서 이어짐

개강일은 1999년 10월 5일 구상원 '홍장후 보성출판사 개강단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임시총회 성립이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유보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도 개강단은 그동안 유보되었던 개강단 성립을 선거기간의 단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최소 개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총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임권 등으로 실행위원회의 위임권으로 '선출된 총장후보'의 자격박탈에 대한 부분 삭제에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17일 확정된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위임권 최인준(정치외교)교수는 "98년도에 총회였던 총장선거 문화를 개선하고 초창기 총회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능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개강단의 의의를 밝혔다. 총장선거시기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의 투표 이후 결정되었다.

98년 총장선거는 조규철 교수가 총장직

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조규철, 안병만, 이재명 교수가 총장후보에 오르게 된다.

재단측은 98년 4월 재단 이사회를 열고 서재명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수위원회의 조규철 총장직무대행, 서울총학생회측은 비정치적으로 열린 재단 이사회의 재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이에 대해 서재명교수는 이를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개강단에서는 파관수 목표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유투표하는 '교향선출발'법에 따라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현행안과는 달리 교향총회에서 최소한 2회 이상의 총회토론을 거쳐 3일 이내에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개강단에는 10년 이상 근무 교수 총장후보자가 없어, 선거운동권 연 준수사단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학	생	학	생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학	생
월	무주무운(₩1,000)	불나불나(₩1,000)	소고기비빔밥(₩1,500)	순두부찌개(₩1,500)	향유수복음(₩1,300)	학	생	생
화	부섯갈래기(₩1,400)	오징어볶음(₩1,500)	포크스테이크(₩1,500)	육개장(₩1,500)	비프스테이크(₩1,400)	면	학	생
수	물고기비빔(₩1,300)	돈육볶음(₩1,400)	짜장면(₩1,500)	닭강정(₩1,400)	부대찌개(₩1,500)	스파게티(₩1,000)	학	생
목	콩나물국밥(₩1,400)	참치회(₩1,500)	소고기비빔(₩1,500)	대추떡볶이(₩1,400)	닭강정(₩1,500)	훈민(₩1,000)	학	생
금	참치회(₩1,400)	참치회(₩1,500)	소고기비빔(₩1,500)	대추떡볶이(₩1,400)	닭강정(₩1,500)	훈민(₩1,000)	학	생
토	참치회(₩1,400)	참치회(₩1,500)	소고기비빔(₩1,500)	대추떡볶이(₩1,400)	닭강정(₩1,500)	훈민(₩1,000)	학	생
일	참치회(₩1,400)	참치회(₩1,500)	소고기비빔(₩1,500)	대추떡볶이(₩1,400)	닭강정(₩1,500)	훈민(₩1,000)	학	생

용인배움터

구분	이	문	관	이	문	관
요일	중식1	중식2	분식	중식1	중식2	분식
월	소고기비빔 불나불나(₩1,500)	육개장 생선찌개(₩1,800)	비빔밥 라면(₩1,200)	소고기비빔 불나불나(₩1,500)	육개장 생선찌개(₩1,800)	비빔밥 라면(₩1,200)
화	고추장찌개 오이냉국(₩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고추장찌개 오이냉국(₩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수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목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금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토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일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불나불나(₩1,500)	비빔밥 라면(₩1,200)	비빔밥 라면(₩1,200)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협약 맺어

국회도서관과 우리학교 도서관의 학술 정보 상호 이용 및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정이 지난 6월 28일(목)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지난 7월 1일(월)부터 외대인 모두 국회도서관에서 국한 원문(국한문) 183000 개 포함 총 34500 여 개를 도서관에서 직접(서울·도서관) 1층 참고·정기발행물 출판권 원문 정전(정전) 4대, 용인·도서관 3층 정기발행물 정전(정전) 2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문이용은 국회도서관 정책에 따라 화하 디스플레이와 프린트 출력만 가능. 자료는 불가하다. 협약기간은 2002년 연장가능하며,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중단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사서와 정지주원 한은정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개선 등 불리한 점이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웹투어와 협약맺어

학술지 2종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지난 8월 29일(금) 외국학종합연구센터와 관련 학회인 '웹투어'와 협약이 체결되었다. 선정된 학술지 2종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되었다.국대지역연구,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Area Review'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국대지역연구,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Area Review'는 앞으로 3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의 monitoring을 받게 된다.

'매국외대 7천학우 통일 큰잔치' 열려

'매국외대 7천학우 통일 큰잔치'가 100여명이 넘는 주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25일(목) 6시부터 8시까지 열렸다. △민족통일추진위원회가 의미 인식 △민중총동맹사단 대립 △국학회의 통일사회의 도모를 위한 이 행사에는 김연, 이석, 양희태, 박정호 등이 참여했다.

한편, 외국학종합연구센터(원장조영수)가 발간하는 '국문학술지' '국대지역연구'와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Area Review'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국대지역연구,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Area Review'는 앞으로 3년 동안 학술진흥재단의 monitoring을 받게 된다.

분석 - 평양통일대회 논란

민나보기 -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다녀온 외대인들

뭇매는 이제 그만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가 7명의 방북단 구성과 해임 위기에 처한 통일부 장관 등 어수선 만만치 않았던 채 막을 내렸다. 방북 대표단이 행한 모든 일과 일정에 ‘역사적’, ‘문화적’이라 칭찬을 받으며 돌아온 소식에 반대로 일거하리 할들 정도로 많은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어수선 만만치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표단 일부가 조국통일 3대원칙 기법일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보자. 대표단의 방북은 북측의 정세고립과 남북의 참가를 통한 해충부터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는 한계점을 통해 지고 행해졌다. 정부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방북불허’에서 ‘기념일 행사참가 불허’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또한 대표단 지도부에 대한 전제조건을 붙여 다수의 참가자들은 ‘각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표단은 예정보다 하루 늦은 15일 오후 4시경 북에 도착했다. 북측은 15, 16일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남북을 참가자적으로 초청해 놓고 15일 개막식 행사에 남북 대표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단 지도부는 도착시간 지연으로 개막식 불참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맡은 상태였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 대표단을 계속 기다리면서 개막식 참가가 어렵다면 ‘구경’ 즉 참관을 요청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단의 방북은 통제가 되지 않는 등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방북단 일부는 개인적 의외에 따라 대표단에서 이탈한 것이다.

남측 대표단 지도부의 단일 자력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공식 지도부는 참가하지 않고 북측의 참가요청에 대한 원의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약속을 지켰고 대표단의 일부가 참가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북측의 요구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틀남(16일)의 국내 일간지들의 보도 내용이 달라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된다. 방북단 일부의 ‘일방통행’이 일부 보수언론의 ‘약속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라는 공세를 받으면서 통일정책 차이에 난관에 빠진 기세가 역전된 것이다.

여기서 언론사 세무조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언론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을 경시한 채, 행사 장면을 강행한 대표단 일부의 잘못과 정황에 따른 판단, 전체에 대한 논의와 설득구도를 갖추지 못한 지도부의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가 낙관적이지 않다. ‘불온성’에 대한 근거도 불확실한 기념일과 그곳에서 진행될 행사 등을 보아도, 이것이 평양행사의 모든 성과를 가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을까. 보수언론을 팔로우 야당과 일부 보수 사회단체 등의 대응이 ‘절소봉’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평양행사와 방북은 그 지대한 성과를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점만이 부각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평양행사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은 이제 구체적 결실로 발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지적인 안목으로 넘어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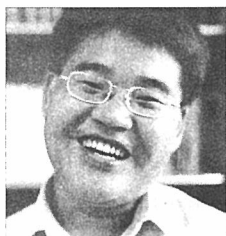
류지훈 기자

평양에서 나는 통일의 씨앗



이정철 교수(한국의대 법학과 교수,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겸 정책위원회장, 민화협 공동회장)

이번 통일대축전의 성과는 무엇인가
정부의 승인을 얻은 최초의 민간축전이라는



김태수(인문·사회 학) 기자협회 기자통신 편집장

기자협회는 남북언론교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지난 88년 11월 언론노조, PD연합회와 함께



김영재(문양·아프리카어 회) 청년학생추진위원회 소속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사의 소감은
남북남녀는 많이 있다. 내 생각에 남남(南南)은 아닌 것 같는데 북녀(北女)는 확실한 것 같다. 여성들이 참하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장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부문간의 교류를 통해 민간네트워크 실현을 구체화시켰고, 세부적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내년 통일축전에는 북측의 대표단을 방한하기로 약속했다. 또 일 제반행위를 공동조사하기로 했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냈다. 종교계·여성·노동 등 부문 별 대화의 성과도 많은데 남북여성 토론회, 문화재 공동관리 합의, 복의 회고 보존 지원 약속 등도 있다.

일부에선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북을 미수북 지역으로 규정하는 우리의 한발 3초처럼 북에도 남한 열도를 미수북 지역으로 규정할 한발 조항이 있었는데 북측은 9년에 이를 삭제했다. 또 퇴각발라 불리는 뒷발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용하고 부분적인 여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여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적절한 강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남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작년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국기원수로 예우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군대를 사열시킨 점 등이 그 근거이며 이는 곧 북한이 우리 나라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 3조와 국기요령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 기법일 행사 참여”와 “민중 대 방북” 사건이 평안으로 우리 사회의 남북 갈등이 심각해지고 주장하며 여론의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어찌하여 격어할 할 과도적 고조되고 있는가. 수습선을 이어온 냉전적 사고방식이 하루이튿날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합리적으로 토론으로 극복하여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색깔론과 정치 공세 등을 통해 이것을 달리타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특히 언론은 통일과 사회의정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좌파와 여당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공세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번 통일대축전을 비롯해서 남한 언론의 대북 보도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이번 사태를 보면 ‘백사자증적 공포’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언론사들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 공격용 키드로 이 사건을 이용하는 듯하다. 몇 언론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해서 많은 오보를 냈다. 대표단 중 몇몇이 인민대학습당에서 집결한 한 안나를 불렀다든지 김일성 주석의 발발상 앞에서 춤을 출리며 절을 했다는 것이 대표적 인 예이다. 인민대학습당은 도서관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노래를 불렀겠는가. 또 북한 사람들이 김주석의 발발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의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남한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하다.

언론교류가 활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단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유의 주도가 발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

사상 사정 때문인지 살인 사범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력이 부족한 점들의 문제를 솔직히 시인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측 인사들 중 몇몇은 북한이 경제수탈감을 바탕으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보았다. 방북 교역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행사장소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행사가 다른 곳에서 진행됐어도 보수측은 이를 문제삼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 중 다른 장소들은 오히려 이상성이 더 적어서 더 낫다. 하지만 조국통일 3대원칙 기법일 앞은 평양시에 어

조선일보에는 ‘북선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결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번 방북 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남북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통로가 생긴 사실 확인이 용이해질 것이고 향후로 이런 기사를 쓰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북에 있을 때 북한의 언론매체를 접할 기회가 있었

방북 기간 동안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보았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남한 대표단의 방북을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는 보도는 없었다. 북한 신문은 제목과 문장이 매우 길고 선동적인 어구가 많이 광고가 없었다. 청년 신문처럼 세련된 독자층을 위한 신문이 발달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기자의 사회적 지위는 남한보다 더 높다고 한다.

서든 볼 수 있는 주체사상이 보이지 않는 장소다. 장소선정과 관련하여 북측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아직도 무력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북한 사람들은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 한국 전쟁으로 북측이 입은 상처가 더 컸기 때문에 참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반감은 큰 편이다. 미국을 민족내부 문제로 개입한 외래세력으로 파악한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민족문제에 관심이 많이 보였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중인가

민간교류의 확대, 증가 등 이번 통일대축전 행사의 의의를 설명하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북한의 실제 모습을 알리기 위해 힘을 것이다. 또 우리가 제안한 배우자 통일 대장정 사업을 위해서 실무추진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류지훈 기자 kckkutt@hanmail.net

대통령 = 할아버지

“... 자치단체 정치를 오래해 온 지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19대대통령을 들어 업고 대만에 육상을 내고 있다네...”

평소 “군인=아버지” 공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크로니클자에게 권정 이 하나 추가되고 말았다. “이러다가 ‘대통령=할아버지’라는 공상이 만들어 지는 거 아니...?”

(훈)

“... 끊임없이 가슴거리를 만들어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요즘도 왕성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방북대사단과 관련, 이상한 사람들을 붙여 보내서 이 소란 이다”고 말했다네...

크로니클자 오래 전 들었던 한 객원이 생각났다. ‘한 사람이 무식하면 그 자신이 손해를 보는 산에서 끝내지만 부지런 함까지 겸비하면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욱)



“... 조규현 총장은 얼마전 3년 넘게 꾸준히 진행해 온 학사구조개편안 유보 방침을 내렸다.”

사회의 변화와 발맞추어 가는 개혁이라는 이유로 학사구조개편을 취학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던 참이었다. 8월 1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안을 보고하고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하였어야 하나 일부 교수들의 단식과 해내 구성원들의 열렬한(?) 반대 외지로 총장은 기꺼이 1년간의 유보방침을 내렸다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우리 크로니클자 궁금한 것이 생긴다.

3년을 넘게 자신이 직접 추진해 온 사안을 구성원들의 요구로 인해 순식간에 1년간 유보방침을 내리만큼 조총장은 여론수렴을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SK)

총장은

여론수렴을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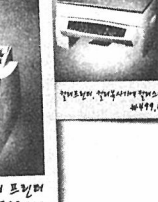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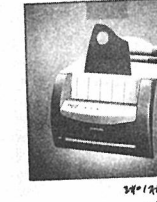
디지털 프린터-상성

이번만은 꼬옥 갖고 말테야!

꼭 찍었던 싱크마스터, 꼭 찍었던 마이젯- 이번엔 꼭 잡으세요!



TFT-LCD 모니터 ₩550,000



3411기 프린터 ₩399,000

싱크마스터·마이젯이 드리는 새 학기 새 출발 박 보너스 9/3~9/30

딱 학생증 한 장만 들고 오시면, 딱 대학생 여러분께만, 딱 좋은 가격에 싱크마스터, 마이젯, 라텍스를 드립니다.

보너스 하나, 풍만 보여주면 깜짝가격으로 줌!

- 원전원 모뎀(17형CD173AP) 특가: 270,000원
- TFT-LCD모뎀(15형CX151S-AS) 특가: 550,000원
- 링크프린터(LJC-2300SF) 특가: 170,000원
- 레이저프린터(LJC-500SF) 특가: 399,000원
- 디지털복합기(SCX-1050SF) 특가: 499,000원

구매문의: 02-317-8394, 8386, 8424

보너스 둘은, 사용소감만 올려주면 현금도 줌!

- 싱크마스터, 마이젯, 라텍스를 사용하시고, 자세한 사용소감을 보내주세요! 우수 사용기를 선정, 후첨한 현금도 드립니다.
- 1등: LCD모뎀 1대
- 2등: 원전원 모뎀 2대
- 3등: 레이저프린터 3대
- 4등: 링크프린터 5대
- 5등: 링크프린터 100원

참조: www.sec.co.kr/printer, www.sec.co.kr/monitor

SAMSUNG Digital! everyone's invited.

SAMSUNG 상성전자

만나보기 - '반갑다, 군대야' 저자 김상석 동문

군대, 준비하는 그대가 필요하다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의 대부분은 군 문제에 직면한다. 그 중 군대에 가기 전 나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26개 월이나 머물게 될 곳인데 말이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군대 내에서 먹고 자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안락성, 병역거부권, 미군문제와 나아가 미 군산복합체의 실체까지 다룬 군 입대 필독서 '반갑다, 군대야'가 지난 6월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상석(홍익대학교 노교과 83학번) 동문을 만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군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고언을 기대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편집자



김상석

얼마 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어린이에게 물어 무엇이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꿈이지 군대가 가 로막은구나'라고 생각하니 충격이 참으로 컸다. 억압적 체 제에 갇혀서 있어서 권리 찾기가 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는다. 그렇지만 왜 군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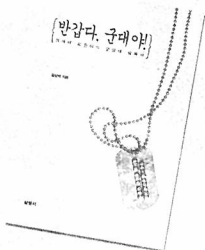
그때도 군대 내에서의 권리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 을까
맞다. 권리 찾기가 움직이는 한계가 있고 반대가 따르지 만, 관심을 가지면 몰라리는 낯에 보이기 마련이다. 점점 민 주적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권리 찾기가 운동이 확산되면 사회 와 연대 활동도 발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앞날을 희망적으로 본다.

악력을 보니 군사평론가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니
나는 50년 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군대 문제를 민주적 시각으로 다루고 알리는 일을 한다. 통속까지 서로 흥미를 갖게 하는 이 비극에 증거부를 찍고 군대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 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한마디를 한 디면?
먼저 군대를 제대로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 입대를 앞두 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군 입대자가 돼야 한다. 생각이 있 는 군인이 되자, 그리고 또 자기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군 인이 되자.

김상석동문은 현재 군사평론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 위원,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대학 뉴스 '유뉴스'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군사 문제, 군 인권 관련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tinguu@hanmail.net



책에서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군대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국방부 통계로 연간 300명이 사 망하고 약 7천여명이 정신질환을 얻는다. 정신질환은 자기 의지와 반하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점과 통솔자에게 충무리를 겨누는 것에서 오는 소위 '분단병'이 그 원인이다. 나 자신도 같은 민족인 이북에게 충무리를 겨워야 한다는 사 실 때문에 괴로웠다. 폭력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군대 안의 억압체계의 부산물이다.

이러한 인권 문제의 한 대안으로 다루고 있는 군대내 권리 찾기가 운동에 군인들의 참여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니

(주위를 가리키며) 겉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군사 국가, 병영 국가다.



보도 - 세번째 월경 페스티벌 '애기치 못한 즐거움'

강요된 부끄러움이며, 안녕!

오는 8일(토)부터 퍼포먼스·그림전시회 등 열여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남짓 여자들은 '그 날'을 겪게 된다. 월경이 아닌 '그 날'이라는 애매한 표현에는 무언가 갑 추고, 말하기 꺼려한다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 개 여성 5명 중 1명 가량은 '그 날' 즉 월경 중이다. 또한 여성은 생애의 약 10분의 1을 월경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셈 이다. 많은 시간 '그 날'을 겪는 여성들은 어떠한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리대를 사기 위해 여자 점원 이 있는 가게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매보거나 생리통으로 하리 가 끊어지자 이라도 남자 선생님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해 공강 앉았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 이제 바로 우리가 겪고 있 는 일상화되지 않은 '월경', '그 날'인 것이다.

이런 답답함을 뒤집는 세 번째 월경페스티벌 '애기치 못한 즐거움'이 오는 8일(토) 늦은 5시부터 9시에 서울 을지로 5 가 혼련공간에서 여성문화기획 불특 주최로 열린다.

'불특'은 제주도 해녀들이 웃을 길아 입으며 여성들의 이 야기와 웃음, 아픔을 나누는 공간을 뜻한다. 외대생으로 이 번 행사를 준비한 황정혜(중앙·중국여 97)장은 "월경에 대 한 단상적인 의문보다는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월경을 경험 하는 여자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면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연대감을 느끼보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초경을 경험하는 10대의 딸과 완 경을 겪은 40, 50대의 어머니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 바람을 덧붙 이었다.

나이가 월경을 일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 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또 중년여성에게 임신할 수 없 어졌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생명이 끝난다는 어중을 주는 '폐경' 대신 여성이 완전하게 성숙했다는 의미를 가진 '완 경'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월경 페스티벌은 지난 99년 '유월남자'라는 제목으로 시작 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내에서 '월경'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레 금기시 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월경'이라는 단어를 행사로 이름으로 내걸고, 월경을 여성을 이 밖으로 드러내게 한 점만으로도 월경페스티벌은 처음부터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두 번째 월경 페스티벌에서는 여성의 몸을 긍정하게 했고, 이번 행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세간의 박을 넘어선 소동 과 연대감'이라는 내용으로 대학 안에서 개최되었던 1, 2회 의 축제와는 달리 보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자 대학의 담장을 넘겼다.

본 행사에 앞서 지난 8월 대학로 등에서 열린 사전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도 대단했다.

종로에서는 2천 명의 유인물이 한 시간도 안 돼 품에 있는 데, 측소라워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생리대의 가격과 품질 등 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맛아, 맞아' 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 았다. 한 젊은 남성은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한 끝에 직접 여자친구의 월경주기 끝까지 만났다고 했다. 한달 단위로 돈을 받는 수당장에서는 여성들에게 이용료를 짜아 주든지, 5주 단위로 값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는 8일 월경 페스티벌에서는 아픔의 불 특 연두와 퍼 포먼스, 여성주의 팀드림의 속사원한 월경 이야기, 아픔의 대북연주로 완경을 축하하는 흥겨운 놀이마당, '다 없 다 게임', 가수 이은미의 축하공연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 는 즐겁고 유쾌한 축제가 벌어진다. 10대 소녀부터 중년의 여성들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이야기 마당도 펼쳐진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객들이 참여하고 함께 월경을 생각할 수 있는 부스와 전시물이 난장성식으로 벌어진다. 여성주의 화가 열경의 그림전시회를 비롯하여 자궁노출을 표현하는 해나지위치는 문신 그리기그리기, 자신의 주기에 맞게 직접 만드는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 먼 생리대 전시 등 관객이 함께 하는 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비단 여성들의 진지한 아닌 남들보다 여자친구와 또는 초경을 맞은 딸이나 혹은 완경을 겪은 부인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황정혜는 바람을 전한 다. '애기치 못한 즐거움'은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 자신의 몸,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 작된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윤은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공 연애

서울, 러시아 예술제 열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제 러시아 예술제가 오는 7. 26(토) 양일간 인문과 학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에는 동음, 첼로, 바이올레, 민중가요, 원어곡, 민속 공연 등이 마련된다. 또, 전라 제 성적으로 6월에는 붉은 공장에서 음악선 을산악인 그리고 유목비디오가 상연된다. 그 중 원어 연극은 '체호프'의 '갈매기'가 상연되 고 러시아 민중의 서민적 정서가 배어있는 민 속을 공연도 펼쳐진다. 7월에는 늦은 6시, 형 에는 늦은 9시에 공연이 시작되는데 9월(토)공 연은 유목인을 위한 공연이라고 한다.

예술제 기획팀장 김재호(97)군은 "이번 행사 준비에 노교과 전체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올해부터 러시아 예 술제 학교의 대표적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 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러시아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 다고 전했다.

"더 큰 세계로 가는 길, INI 스틸이 열겠습니다"

인천제철의 새 이름, INI 스틸

철(鐵)은 문명의 어머니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온 인천제철이 INI 스틸로 사명을 바꾸고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서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기술로 더 큰 세계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철강전문가 - 아이 앤 아이 스틸

INI STEEL
아이 앤 아이 스틸

